



적 활동을 통해 국내 상위 분야의 SW 기술의 표준 선점을 유도하여 국내 SW 산업의 수출촉진과 외화획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포럼의 구체적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크게 4가지의 활동형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서술할 수 있다.

첫째, SW 기술표준화포럼 조직 운영

- 정기적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국내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표준기술 개발 방안을 확립
- 국내 SW 기업의 표준기술 활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
-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분과위원회의 활동 사항 및 개발 표준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 연구 결과물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국제 표준으로의 상정 작업 실시

둘째, 국내 SW 기술 표준안 개발

- 포럼 분과위원회(현 J2EE, .Net, 아키텍처, SOD/

웹서비스, 프레임워크/프로토타입, 임베디드, Best Practice, 생산성/품질, 국제협력 등 9개 분과)를 운영하여 국내 SW 기술 분야별 주요 표준안으로 집중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포럼 회원사 및 SW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안 연구를 위한 사전 SW 산업계 표준안 개발 수요조사 실시
- 표준안 연구를 위한 공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내 SW 업계의 실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표준 개발에 적용, 실제 산업계와 연구 공감대를 형성

셋째, 국제 SW 기술표준화 활동 동참

- 국제적 SW 기술 전문가를 초청, 국내의 우수 SW 기술보급 및 SW 표준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 SW 아키텍처, 개발프로세스, 분석설계 기술 관련 국제표준기구인 OMG, ISO JTC 1 SC7, UMLT (UML Modeling Technology Promotion: 한·중·일 아시아 모델링 표준기구) 등 국제표준기구 회의에 포럼의 전문 인력 파견

- IBM, Microsoft 등 해외 글로벌 SW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SW 생산성과 품질 관련 SW 개발 및 기반기술 분야의 표준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국내에 보급
- 2006년 9월 한·중·일 SW 설계기술(모델링) 기술인력 교류를 위한, 국제 SW 아키텍트 자격인증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중·일 3개 국의 SW 모델링 인력에 대한 공동 자격인증 표준 수립 추진

넷째, 국내 SW 관련 기관과의 연계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PG108, PG109)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 SW진흥원 SW 공학센터, 한국 SW 공학협회, 한국 IT 서비스학회 등 국내 SW 기술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SW 기술표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

소프트웨어기술표준화포럼은 위에서 열거한 4가지의 주요 활동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국내 SW 산업의 대표적 표준화 공동체로서 SW 관련 기업 및 기관 등이 자유스럽게 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결과를 토대로 국내 SW 산업환경에서의 표준기술 활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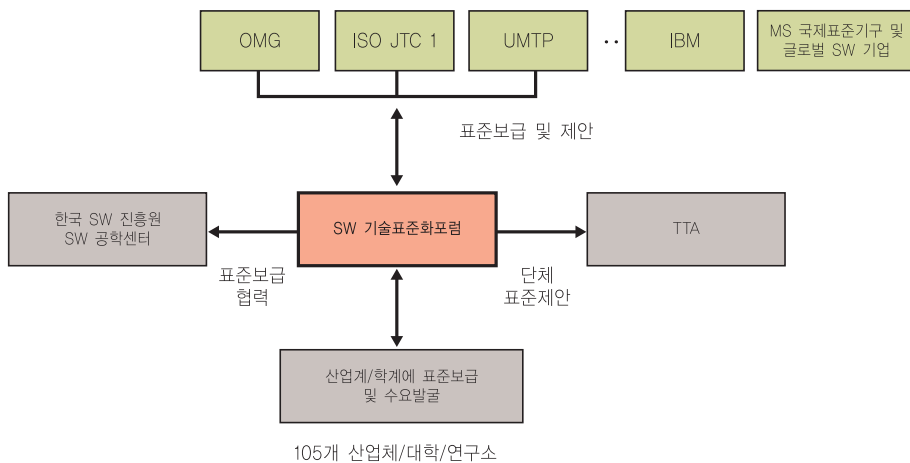
모색하여 나아가고 있다.

또한, 포럼은 표준화 연구에만 그 활동의 장벽을 만들지 않고

- 국내 SW 기술 Best Practice 발굴 및 자료집 발간보급을 통한 SW 산업계의 표준 가이드 제공
- SW 기술별 전문기업 전시회 개최를 통한 SW 기술발전의 현황 및 최신기술의 방향성 제시
- 국내 SW 설계기술 자격인증 시험을 통한 국내 SW 모델링 기술의 보급 및 활성화 유도
- 한국 SW 기술협회(KOSTA)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통한 SW 기술표준화 인력양성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활동을 통하여 국내 SW 산업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향후, 국내 SW 산업이 글로벌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산업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품질의 SW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의 표준화 연구활동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 사용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국내 산업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역량이 국제적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해외 선진



| 그림 | SW 기술표준화포럼 표준화 추진 및 수행체계도



표준 기술보급 활동과 국내 우수 분야의 표준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계와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활동 내역]

1) 국제 표준 컨퍼런스 및 표준기구 활동

- 한·중·일 컴포넌트 포럼 개최 및 참가 ('01년 ~ '03년)
 - ※ 한국(SW 컴포넌트표준화포럼), 일본 CBOP(Consortium for Business Object Promotion), 중국 CSCC (Chinese Software Component Consortium)
- Modeling Forum 2004~2005 참가 ('04년 ~ '05년)
- OMG Technical Meeting 참가 ('03년 ~ '04년)

2) 국내 SW 기술표준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 IT Forum Korea 2001 ~ 2005 참여

('01년 ~ '05년)

- 한국 SW 기술 비전과 발전 로드맵 대 토론회('05년)
- Agility 확보를 위한 차세대 SW 개발 프로세스 세미나('06년)
- 대한민국 SW 기술대전 및 컨퍼런스 ('05년 ~ '06년)

3) SW 기술발전 방안 워크숍 개최

- SW 프로젝트 및 개발 생산성 향상방안 워크숍('05년)
- SW 설계기술 인력 자격인증 워크숍('05년)
- SW 기술교육 방안 워크숍('05년)
- SW 기술인력 양성 채용방안 산·학·연 간담회 ('06년)

4) 포럼 단체표준 개발

- 포럼 개발 표준안 전체 41개('01년 ~ '05년)

TTA